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읽어낼 수는
없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읽어낼 수는 없다.

수능 국어 강의를 수강하거나 독학서를 접하는 학생들의 질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배운 대로 독해가 잘 되지 않아요!”입니다.

시험장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완벽한 독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완벽한 독해가 수능에서 꼭 필요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수준의 독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환경에서는 모든 지문에 대해 그러한 완벽한 독해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 강의는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수업이기에 필연적으로 실전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한 지문을 30분 동안 분석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독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어진 대로 읽고, 요구하는 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같이 **22년도 수능의 브레턴우즈 지문**을 보면서 알아보시다.
10, 11, 12번을 다 보게 되면 과도하게 길어지므로 **지문과 13번의 ④번 선지만** 발췌해서 봅시다.

해당 지문을 독해하며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바로 엮어내고 문제로 갈 수 있나요?
배경지식이 없는 한, 그러한 독해는 쉽지 않고, 그러한 해설은 사후적인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과 문제는 **13번의 ④번 선지**에 도달해서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판단하러 돌아갔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봅시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교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 온스와 35 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지금부터 같이 지문을 읽어봅시다.

1문단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된 ‘딜레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간에 결국 파국을 맞이하기에 ‘딜레마’입니다.

‘기축 통화’에 대한 정의가 제시됩니다. ‘A는 B이다.’로 제시해 주었으니, 다음 문장과 문단에서 연결 지어 활용해야겠군요. 트리핀 교수는 달러화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상 수지’의 정의를 제시해 주네요? 또 ‘A는 B이다.’로 정의했습니다. 중요한가 봅니다.

다시 트리핀 교수의 주장으로 돌아와서...

“경상 수지 적자 X → 국제 유동성 공급 X → 세계 경제 위축”이라고 합니다. (#과정순)

‘국제 유동성’은 대체 뭘까요? (#의문)

‘반면’을 보니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측은 이러한 단기적 예측만 권장합니다. 접속사, 보조사, 어미를 통해 한두 줄 정도 다음에 올 말을 예측해 봅시다. 단, 한 문단을 뛰어넘는 구조적 예측은 금물입니다. 글의 구조, 서술 방식은 그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서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를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상 수지 적자 O → 달러화 과잉 공급 →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저하 → 고정 환율 제도 X” (#과정순)

달러화는 준비 자산인가 봅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대체 뭐죠? (#의문)



2문단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 온스와 35 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국제 유동성의 정의를 통해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이었고 통화 가치는 금에 ‘고정’됩니다. 이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서 환율을 ‘B하는 A’로 정의해주네요. 환율을 고정해서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해결)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은 유지하되 달러를 금에 고정했습니다. (#통시)

(통시적 흐름에서는 변화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금이 유지된 채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 된 것이 ‘금 태환 조항’이겠네요. 이는 ‘의무’라고 했으니 무조건 바꿔줘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고 달러화는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고정 환율 제도’라고 부를 만합니다.

‘달러화로만’ → ‘금 태환 조항’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

‘교차 환율’은 달러화를 제외한 국가들간의 환율이군요.

(#정의, B하는 A)



3문단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결국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잠깐 1문단으로 돌아가 봅시다.

“경상 수지 적자 ○ → 달러화 과잉 공급 →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저하 → 고정 환율 제도 X” (#과정순)

여기서 달러화의 과잉 공급되어 금 준비량의 급감이라는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는 ‘금 태환 조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금 태환 의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달러화의 평가 절하 (달러화의 가치↓)
 2.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 (여타국 통화의 가치↑) =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
- (#해결)

이러한 관계로 미루어 보아 환율과 통화 가치는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금 태환 의무’에 의해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해결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환율의 변동은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도 좋지만, 시험장에서 거기까지 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하고 가겠습니다.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면 그 가치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가치의 상승은 평가 절상을 의미합니다. 앞서 자신의 화폐가치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던 일본과 독일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 셈입니다.)

결국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으나 안 그래도 부족한 금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 결과, ‘닉슨 쇼크’를 단행합니다.

이 지문의 큰 흐름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왜 붕괴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4문단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됩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언급합니다.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달러화'라는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의 작은 흐름에 속하겠습니다.
문제를 위한 문단 같으니 간상(표시)만 남기고 문제에서 돌아갑시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③번 선지를 판단하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이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④번 선지를 보니,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이때, 지문으로 돌아가서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엮어내 봅시다.

1문단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경상 수지

수입 > 수출 → 적자

수입 < 수출 → 흑자

경상 수지는 '수출-수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 수지 적자 O → 달러화 과잉 공급 → 준비 자산

으로서의 신뢰도 저하 → 고정 환율 제도 X"

2문단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환율은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3문단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하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1문단에서 트리핀의 예측과 3문단을 연결 지어 봅시다.

"경상 수지 적자 O → 달러화 과잉 공급 →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저하 → 고정 환율 제도 X"

현재 미국의 상황은 경상 수지 적자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경상 수지의 개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 (여타국 통화의 가치↑) =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여타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환율을 상승시키고 경상 수지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타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증가했고 경상 수지도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율과 경상 수지는 비례합니다.

이처럼, 문제-해결의 구조를 활용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저러한 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문장에 주목해봅시다.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흑자 상태라고 합니다. 1문단에서 제시된 '경상 수지'에 대한 정의를 되짚어보면, '수출-수입'이라는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봅시다.

미국과 일본사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일본이 대미 무역 흑자 상태라면 당연히 미국은 대일 무역 적자 상태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경상 수지의 악화) 이는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는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을 읽으며 이러한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다면, 훌륭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과도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선지를 보고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는 주어진 대로 독해하고 선지에서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돌아가서 선지 판단을 위한 독해를 합니다.

